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86 (순교자 믿음)	Here I am Lord (받으소서 우리 마음)	188 (천사의 양식)	O God Beyond All Prasing (Eng. 프린트)

오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을 한 분뿐인 주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재물을 쌓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느님께, 자유롭고 깨끗한 손을 들어 온 삶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제 1독서 | 아모스 8,4-7

화답송 |

◎ 불쌍한 이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 (좌)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

○ (우)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 보시는 분. ◎

○ (좌)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자리에 앉히시네. ◎

제 2독서 | 티모테오 1서 2,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6,1-13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복음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3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4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5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6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쉼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7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

였다.

8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0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11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13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고발을 당하고 해고됩니다. 더 이상 주인의 재산이 자기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집사는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만듭니다. 바로 이 점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가 정직하지 않더라도 일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점이 칭찬받는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건강, 지능, 지위, 이 모든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모두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쓸 때, 곧 사랑할 때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도와준 모든 이가 천국에서 나를 맞으러 버선발로 달려 나올 것입니다.

- Fr.김태훈 리푸쵸



성당으로 향하던 길, 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슬쩍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 자그마한 새둥지 안에 아기 새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한 발짝 다가서지 않았다면 쉽사리 지나쳤겠지요.

문득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사랑의 속삭임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을까요. 새둥지에 한발짝 다가간 그 순간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한 발짝만이라도 다가서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안에서도 아기새들의 노래처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절로 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 매우 낯설고 심지어 불편할 수도 있는 가톨릭 사회교리 중 '지상의 모든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땅(지구)'은 누구 것일까요? 극단적이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 생명 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을 모두 파괴합니다. 전쟁을 피하여 모두 '살기 위해' 자신들이 머물던 '땅'을 떠나야 하는 '피난민'의 처절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기서 국경은 그들에게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과연 특정 집단의 소유를 나타내는 땅의 경계가 이토록 많은 사람의 생과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땅(지구)'은 누구의 것일까요? 창세 1,1-2,47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섯 차례나 “좋았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에게 당신의 땅과 생물을 돌보라고 맡기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생물에게도 그 땅의 결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마침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내용을 확신합니다.

첫째,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셋째, 그러면서 땅의 결실을 사람과 생물의 삶(생계)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느님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합법적인 제도에 적용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쓰고 남은 것만을 주지 말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굶주림에 짓눌려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 한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참으로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민족이 스스로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사목헌장, 69항>.

이를 사회교리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공동선의 일반적 의미에 있어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지상의 모든 재화'는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의 품위 있는 삶(생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하느님의 원래 의도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유 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맞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일부 불의한 이들의 습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Fr.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글 편집

공지 사항

1. 추석 한가위 미사 및 행사 안내

* 날짜: 10월 5일 (주일)

* 일정:

- 11:30 ~ 12:00 위령을 위한 연도 및 분향
- 12:00 ~ 13:00 미사
- 13:00 ~ 14:00 점심식사
- 14:00 ~ 16:30 율놀이 등 미니게임

<미사 후 행사 및 식사 나눔 안내>

* 작년과 같이 식사 나눔 때는, 사목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가정당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School Holiday 아이들(유아&청소년) 활동

* 장소: Bounce Belconnen

* 일시: 10월 11일 (토) - 9:30 ~ 14:00

-참가방법: <https://forms.gle/8mAhUDVqT9Z7z9bk9>

URL 접속 혹은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해주세요~



by 김현진 글라라 작가

| 미사 참례자 수 |

9월 7일	유아·청소년: 26명	성인: 48명
9월 14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45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9월 14일)	마태오반
다음주 (9월 21일)	요한반

| 봉헌금 & 교무금 | (9월 13일 ~ 9월 19일)

봉헌금	\$ 258.05			
교무금	\$ 540			
구민식	권모순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